



무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 선교부장 하 근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오년의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한 해였기를 빕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해의 나의 삶을 평가해 보고 금년에는 좀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노하였고……(이는) 저희 눈은 먼 곳을 볼 수 없음이라.”(모 6:27)

우리는 원대한 미래를 주시하고 새로 맞이하는 이 한 해를 충실히 살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선교사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족을 교회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곳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라고 명하셨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인도할 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원하시며, 우리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신년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항상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송가”라는 소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는 부자이기는 하나 수전노이기 때문에 친구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보여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미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에게 보여 주

었던 것입니다. 꿈에서 그 영은 스크루지를 이끌고 먼저 그의 무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잡초가 우거졌고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칠 많은 일을 보여 주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난 후에 “이러한 모든 일이 반드시 나의 미래에 일어납니까?”하고 영에게 물었습니다. 그 영은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어떤 현실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은 일어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스크루지는 “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때부터 과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웠던 일은 그가 잠에서 깬 때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디킨즈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그가 누워 있던 그대로 있었고, 방은 그의 방 그대로 있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그가 앞으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생을 살려나 스크루지처럼 각오와 결의에 찬 자세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1978년이 과거의 어느 해보다 가장 훌륭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행하여 온 것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

신임 총관리 역원 소개

대관장단은 지난 10월 1일 147차 반연차 대회의 첫 모임에서 솔트레이크 출신으로 휴 월레스 피노크 형제와 독일에 사는 지역 대표 에프 엔지오 부쉬 형제, 일본 동경 스테이크 부장인 요시히코 키쿠치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른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총관리 역원의 수가 44명으로 늘었다.

피노크 장로는 1968년 12월에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고 4년 반 동안 봉사하였으며, 1973년부터 1976년까지 펜실바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선교부장을 역임하였다.

1934년 1월 1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로렌스 실버스트와 플로렌스 보든 피노크의 아들로 태어난 피노크 장로는 1958년 유타 대학을 졸업한 후, 동년 10월 13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앤 호킨스 자매와 결혼하였다.

솔트레이크시티 윈더 스테이크의 고등학교 평의원과 윈더 스테이크 제 3와드 감독을 역임한 그는 커네티컷트 뮤추얼 라이프 대사로 일했다.

부쉬 형제는 1970년 12월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아 현재 도르트문트 스테이크, 뚝셀돌프 스테이크,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스투트가르트 스테이크, 베르린 스테이크, 함부르크 스테이크, 하노버 스테이크를 관리하고 있다.

20년 전에 개종한 그는 도르트문트에 큰 인쇄소를 갖고 있고 함부르크에 지사를 낸 탁월한 사업가이다. 그는 스테핀 시 리차즈 전 선교부장의 보좌를 역임한 바 있다. 1930년 4월 5일 프리츠와 앤느 웨버 부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55년 8월 9일



피노크 장로 부처

쫘타 바움 자매와 결혼하였으며, 1958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상업 학교를 졸업하였고 본에서 프라이버그 대학을 나왔다.

키쿠치 장로는 1974년 10월 일본 동경 스테이크 부장에 부름을 받았다.

1941년 7월 25일 홋카이도 무로란시에서 핫쫘오와 코요 이케다 키쿠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64년 8월 24일 토시코 코시야 자매와 결혼하였다. 그는 동경 서지부에서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1967년에는 일본 선교부장의 제 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동경 서지부는 지금 동경 제 3와드로 되었으며, 키쿠치 형제는 현재도 계속 3와드에 속해 있다.

그는 북극동 선교부에서 북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건축 선교사로도 봉사하였다. 아시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일본에서 레나 와드 회사의 판매부장으로 일했다.



부위 장로 부처



키루지 장로(부처)

서울 서 스테이크 제 1회 청년 음악회 성료

서울 서 스테이크 멜기세덱상이회는 지난 11월 5일 제 6와드에서 제 1회 청년 음악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산하 각 와드와 지부에서 음악에 재능을 가진 성도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이번 발표회에서 9와드의 양경신 자매와 2와드의 강혜임 자매는 스스로 작곡한 곡을 연주함으로써 참석자 청중을 놀라게 했고, 7와드 허병석 형제는 플룻 연주로, 인천 와드의 이명애 자매와 2와드의 한명실 자매는 독창으로 많은 갈채를 받았다.

200명의 성도와 구도자가 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번 발표회를 주관해 온 멜기세덱상이회 담당 고등 평의원 홍무광 형

상: 음악회에 참석한 성도들, 하: 플룻을 연주하는 모습



제와 박기생 형제는 앞으로 계속 스테이크 젊은이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5~6일 양일간 서울 스테이크는 제1와드에서 1977년 3/4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의 주제는 "가정의 강화"였으며, 지역대표 니시모도 장로가 모든 모임을 감리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스테이크 산하 5개 와드와 새로 편입한 춘천, 원주 지부를 포함하여 6개 지부에서 936명이 참석했다.

165명의 성인 부부가 참석한 토요일 대회에서 흥 명자 자매는 "지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참된 내조란 올바른 자녀 교육과 선교 사업에의 협조라고 말했다. 최옥환 부장은 "감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니시모도 장로는 "가정에서의 영적인 지

도력"이란 제목으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범으로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일요일 일반 총회는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147만 연합 대회에 참석한 손승은 제1와드 감독과 서희철 부장의 보고가 있은 후, 이 호남 부장은 "사람의 인격은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니 올바른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상호부조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대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고조되었다.

니시모도 장로는 모든 가정에게 가정의 축복사로서 가족을 인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서 장로 13명과 대제사 1명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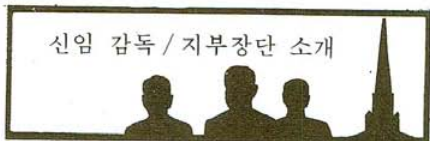
말씀하는 니시모도 지역대표와 통역을 맡은 이호남 부장



상호부조회 합창단

대회에 참석한 성도

대회에 참석한 회중



서울 스테이크 잠실 지부

지 부 장 : 김 과 영
제 1 보좌 : 송 재 현
제 2 보좌 : 이 응 도

부산 선교부 배구 대회

지난 10월 1일 부산 선교부장배 쟁탈배 구대회가 동아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선교부 산하 5개 지방부가 격전을 벌인 끝에 신생 마산 지방부가 우승을 차지하여 컵을 수상하였다.

76년 7월에 조직된 마산 지방부는 성도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특히 지방부 대표팀이었던 진주 지부(지부장 하 장호)는 회원이 불과 30여명밖에 되지 않지만 실력을 발휘하였다. 적은 수지만 전회원의 참여는 성도들의 우정과 단합을 도모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1977년 10월 29일 오후 4시 제2와드에서 제1회 재능 발표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산하 5개 와드와 5개 지부의 귀여운 어린이들은 평소 초등협회에서 배운 음악, 연극, 웅변, 무용뿐만 아니라 태권도 등 훌륭한 재능을 발표하여 참석한 많은 회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김 순남 스테이크 초등협회 회장은 “처음으로 갖는 모임이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역원과 어린이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소감을 말했고 앞으로 더욱 향상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연극, “숲 속의 대장간”을 발표한 안양 지부는 최우수상을, 고전 무용을 발표한 제2와드는 우수상을, 제6와드와 인천 와드는 장려상을 차지하였다.

사모아에 21번째 신전 건립

사모아와 통가와 타이티와 피지 등 남태평양 제도에 살고 있는 약 50,000명의 회원을 위해 사모아에 신전이 건립될 계획이라고 대관장단이 발표하였다.

사모아 신전은 교회의 21번째 신전으로서 1978년 말에 미국령 사모아에서 기공식을 가져서 바로 건축을 시작하여 1980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150만불(7억 5천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이다.

현재 교회 회원들은 신전 사업을 위해서 2,500마일을 여행하여 뉴질랜드로 가고 있다. 사모아 신전이 세워지면 통가, 타이티, 피지섬에서 오는 거리를 약 절반으로 단축하며 아울러 여행 비용과 시간도 절약된다.

대관장단은 10월 2일에 그로버그 장로와 남태평양 지역 담당 두 명의 지역 대표 및 13명의 스테이크 부장을 만나 이 계획을 통보하였다.

“사모아에 신전을 건립하려는 대관장단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물었을 때, 이들은 만장일치로 지지하였으며 방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읍니다”라고 그로버그 장로는 당시의 감격된 순간을 전했다.

안양지부 어린이들의 활동 모습



서울 서 스테이크 체육대회

지난 77년 10월 1일(토요일) 서울 서 스테이크는 서대문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국민학교”에서 제 1회 서울 서 스테이크 종합 체육 대회를 가졌다.

5개 와드와 5개 지부가 한자리에 모여 형제 자매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체육을 통한 단결과 사랑을 배웠다.

15개 종목에 걸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 아론 신권 및 청년회, 독신 성인 상호부조회 회원, 장로 정원회 회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다.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개회사를 통

하여 “개인의 건강은 교회를 튼튼하게 키운다”고 강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회를 감리하셨다.

모두 349명이 참가한 이 체육 대회에서 1등은 7와드, 2등은 2와드, 3등은 인천와드, 장려상은 9와드가 차지하였다.

이에 앞서 새로 준공된 제 6 와드에서 서울서스테이크 제 1회 농구 대회예선 및 준결승이 있었고 9월 17일에는 결승전을 가졌다. 국내 최초로 와드에 실내 체육관을 갖춘 제 6와드에서 열린 이 농구 대회에서 1등은 2와드, 2등은 9와드, 3등은 인천와드, 4등은 7와드가 각각 차지하였다.

신학 연구원 태버내클 축전 성료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신학 연구원 총 학생회 주최로 열린 제 5회 “태버내클 축전”이 28일 회장단의 개회식에 이어 성경 퀴즈, 장기 자랑 및 신입생 환영회, 29일 체육대회, 예술 발표회, 30일 다 함께 노래부르기 및 게임, 무도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또한 같은 기간 중 학생회의실에서는 꽃꽂이, 시화 등의 전시회가 열렸다.

축제 첫날인 29일에는 신약부 주최의 성경 퀴즈가 있었으며, 29일엔 체육부 주최로 탁구, 배구 결승이 있었다.

또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 먼저 신기종 형제와 정 성혜 자매의 사회로 다 함께 노래 부르기 및 게임이 있었고 곧이어 여학생부가 정성으로 마련한 식사를 들고, 박 수신 형제와 강 혜임 자매의 지도로 무도회를 가졌다.

이날의 피날레는 이 재욱 형제의 사회



축제에서 활동 모습.

로 차분하고 경건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석별의 정을 노래 부르며 사흘간의 다채로웠던 축제의 막이 내려졌다.

이번 신학 연구원 축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영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써 시종 일관 즐거운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신앙의 간증을 키우고 서로의 형제애를 복돋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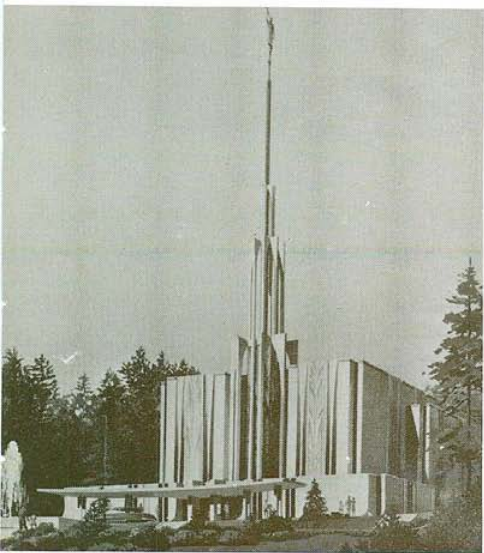


현재 건립 중인 새로운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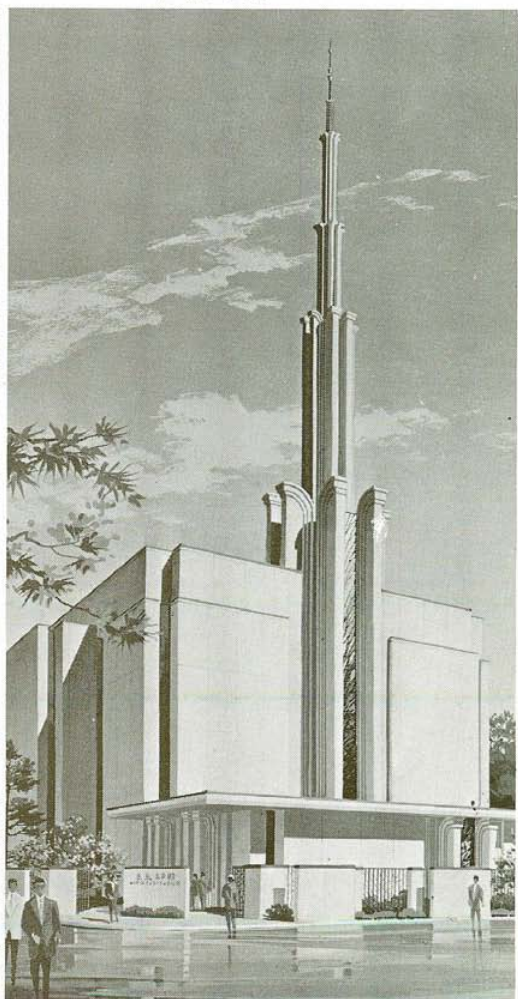
멕시코 신전



브라질 상파울루 신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신전



일본 동경 신전